전법의 힘…동국대 봉축수계식 역대급 참여

4월 23일 수계식 280여 명 동참
지난해 대비 48.4% 참여 증가해
학생 수계 신청자만 210여 명
돈관 스님 "계 지켜 주인공 되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는 4월 23일 교내 정각원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수계 동참자가 282명에 달해 역대급 참여도를 보여줬다.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생명으로 세세생생 무한한 생애를 바꿔 가면서 온 국토 일체 중생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으로 장엄코자 합니다. 대비로 섭수해 주시옵소서."

동국대 정각원을 가득 메운 학생, 교직원들이 참된 불자로 살아가겠다는 우렁찬 발원을 부처님께 올렸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23일 교내 정각원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김용현 교무부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과 수계 동참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봉축수계법회는 역대급 동참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대 정각원에 따르면 올해 수계 동참자는 학생과 교수·교직원 포함 282명으로 학생 신청자만 21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수계 동참자 190명과 비교해 48.42%가 증가했다.

이날 전계사로 나선 이사장 돈관 스님은 수계 동참자들에게 5계의 의미를 설하며, 계를 지녀 참된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터전이 된다"면서 "이런 까닭에 부처님은 계율이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계를 지키며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고, 동국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수계 동참자들은 참회게를 합송했으며, 인례사 스님들은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이어 돈관 스님은 교수, 교직원, 학생 대표들에게 수계첩을 전달하며 불자로 거듭남을 축하했다.

법회 참석 학생들은 오늘 수계로 신실한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지혜은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 회장은 "이렇게 많은 법우들과 수계한 것은 처음"이라며 "불교를 재미있게 바라보고, 함께 신행하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기쁘고 반갑다. 앞으로도 학내 전법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유학생인 유정군(국제통상학부) 씨는 "10살에 중국 고향의 사찰에서 수계한 적이 있다. 당시는 자그마한 사찰이라서 이 정도 인원과 함께 수계한 적은 처음이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법포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만공의 피리 소리', 法音돼 울려 퍼지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4월 20일 봉축점등식

올해 장엄등, '심우도' 형상화
행렬등·연희무대, 미리 선봬


한마음선원 봉축장엄등 '만공의 피리 소리 등(燈)' 앞에서 청년 회원들이 풍물과 사자춤 공연을 하는 모습.

매년 연등회에서 대중의 주목을 받는 한마음선원의 장엄등이 공개됐다. 올해 한마음선원의 장엄등은 심우도를 형상화한 '만공의 피리 소리 등(燈)'으로 본래 성품을 찾는 구도의 여정을 담아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4월 20일 안양본원 불교문화회관에서 불기2569년 봉축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은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등 전국 지원 대중스님과 안양 염불사 주지 향림 스님, 상월결사 사무총장 문종 스님, 최대호 안양시장, 김학규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신현준 안양본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점등식은 한마음선원에서 자체 제작한 장엄등과 행렬등, 선원 연희단의 공연을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들 장엄등과 행렬등은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의 점등으로 불을 밝히며, 도량과 세상을 비추었다.

'만공의 피리 소리 등'은 자성불과 합일돼 깨달음에 이르는 구도 여정을 담은 심우도의 단계를 구현했다. 소를 찾고 고삐를 매어 길들이는 동자의 정진은 무명으로 덮여 있던 검은 소를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상징하는 흰 소로 변화시키는 선원 대중들의 수행을 나타낸다. 중앙의 일원상과 하나가 된 동자는 이윽고 소의 등의 올라타 구멍 없는 피리를 부니 소리 없는 법음(法音)이 만공에 울려 퍼짐을 한마음선원 대중은 장엄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각 법회별 행렬등도 소개됐다. 점등식에서는 승단 행렬등 '지수화풍등'을 비롯해 △선법합창단 '여의주등' △신도회 '만파식적등' △어린이회 '마음의 주인등' △학생회 '마음의 나침반등' △청년연희단 '생황등'을 각각 선보였다. 이와 함께 각 법회들은 행렬등과 연등회에서 선보일 군무를 대중에게 소개했다. 특히 청년회에는 올해 2인 1조 '사자춤등'을 새롭게 선보였다. 한마음선원 풍물패 '허공꽝꽝이'와 함께 이뤄진 사자춤은 점등식 참가 대중의 흥을 한껏 돋웠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원 사부대중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올해 봉축장엄등은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표현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공부 과정 중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시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스님은 "흰 소를 타고 있거나, 그 흰 소마저도 버려 자신의 본성인 한마음으로 물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면서 "우리 모두 흰 소가 되어 소리 없는 피리 소리를 내고 그마저도 버려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정진의 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얻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신중일 기자

자비의 등불, 광주를 밝히다

4월 19일, 빛고을관등회 봉행



1300년 이어온 광주의 전통 불교문화축제 '빛고을관등회'가 성대하게 봉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4월 19일 5·18민주광장과 시내 일대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빛고을관등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시민과 불자들의 열띤 동참 속에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관등법회, 연등행진, 대동한마당까지 다채롭게 펼쳐졌다.

소운 스님은 봉행사에서 "광주는 정의와 자유, 인권과 평화를 위해 온몸으로 살아온 빛의 도시"라며 "우리가 봉행하는 장엄불사는 광주가 다시금 자비와 화합으로 존중과 공경의 빛이 가득한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홍대 앞서 펼쳐진 첫 불교문화축제

마포구사암聯, 레드로드에서 봉행
9개 사찰 참여해 체험행사 '눈길'



'젊음의 거리' 홍대 앞에서 처음으로 불교문화축제가 열렸다.〈사진〉

마포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경륜 스님, 석불사 주지)는 4월 20일 서울 마포에서 '불교문화축제 in 레드로드'를 개최했다. 축제에는 초심사, 만덕사, 석불사 등 관내 9개 사찰이 참여해 불교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체험 부스와 공연, 법회를 준비했다.

사찰 부스에는 오전 10시부터 10~20대 젊은이들과 가족, 외국인들이 찾았다. 초심사는 전통 사물 체험을, 청수사와 영통사는 연꽃등 만들기를, 혜은정사는 부처님 사리 친견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심을 모았다. 성림사는 법구경 키링 나눔과 사천왕 엽서 보내기를, 선혜사는 선명상 체험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만덕사의 염주 만들기 체험은 준비한 1000명 분량이 소진돼 다시 재료를 준비하기도 했다.

회장 경륜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화합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부처님 오신 의미를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여수령 기자

남원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봉행

30년 청년불자 발자취 되새겨



남원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도법 스님, 실상사 회주)는 4월 19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남원시 연등축제 30주년과 불교청년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남원시사암연합회장 승묵 스님은 봉축사에서 "정치적 혼란과 삶의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 등불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밝혀준다"고 강조했다.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은 '만인의 벗, 붓다의 길 우리의 길'이란 주제의 특별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거룩한 것은 팔정도를 생활화하고, 청하지 않아도 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며 "불자들이 남원시민들에게 좋은 친구가 돼 감동을 전해 달라"고 불자들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